



성소수자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

서울시 의회는 차별 없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주세요!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이메일 _ lgbtact2@gmail.com

트위터 _ @lgbtstu

사무국

언니네트워크

(121-819)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204-17 101호

Tel. 02-3141-9069 | Fax. 0303-0799-1217 / 02-6497-9069

목 차

브리핑 요약본	3
참고자료 1. 2010년 서울 민주 진보 교육감 추대위 후보자 질의서	4
참고자료 2. 2010년 서울 민주 진보 교육감 추대위 최홍이, 곽노현 후보자 답변서	6
별첨 - 차별사례모음집	

성소수자 학생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연설
(2010년 12월)

“성적 지향을 둘러싼
쟁점들이 얼마나
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매우 상이한
관점들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권의
신성함입니다.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차별을,
특히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편견에 맞설
때에야 비로소
폭력은 멈출
것입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낼
때에야 비로소
낙인과 차별은 끝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가 각자의
소임을 해야 합니다.

집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성소수자 청소년도 당신의 학생입니다

40명 학급 당 적어도 2~4명의 성소수자 학생이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7) 연구에서는 6,160명의 학생 가운데 5.8%가 동성애 성향이 있다고, 김경준 외(2006)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 1,309명 중 9.4%가 성소수자라고 응답했다.

성소수자 학생의 절반 이상이 폭력과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청소년 130명 중 51.5%가 언어적 모욕을, 13.8%가 구타를 경험했다(강병철·김지혜, 2006). 교사가 수업시간에 편견과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을 하거나,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별점을 주거나 정신병자로 취급하는 사례가 드러났다(차별사례모음집, 2011).

그 결과, 성소수자 학생은 교육을 거부당하거나, 학교를 떠나거나, 자살을 시도합니다. 성소수자 청소년 133명 중 77.4%가 자살을 생각하고, 47.4%가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었다(강병철·김지혜, 2006). 학교는 청소년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전학을 보내거나, 자퇴에 이르게 하거나, 입학을 거부하기도 한다(차별사례모음집, 2011).

차별없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니도록 하는 것, 국가의 의무입니다

국제인권법에 따라 한국은 성소수자 차별금지과 보호조치의 의무가 있습니다.

- 국제인권법에서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인권침해로 본다. 특히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이 금지되며, 성소수자 청소년은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일반논평4, 2003년).
- 2011년 10월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권고문에서는, 한국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입법화하고, 소수자 아동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시급히 국가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였다.

성소수자를 위해 “안전한 학교 만들기”는 이미 선진국에서 입법화되어 있습니다.

- 미국 21개 주와 워싱턴DC에서 성소수자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다. 이 중 캘리포니아 등 13개 주와 워싱턴DC에서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하고, 학교의 의무, 구체수단 등을 구체화한 교육관련 법을 제정하였다.
- 유럽의 경우, EU기본권헌장 제21항에서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에 따라 각국에서 입법이 진행된다. 영국의 평등법에서는 교육당국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의한 차별을 철폐하고 포용적 학교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편견과 낙인, 차별과 폭력을 묵인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입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은 언론이 그리는 편견이나 종교적 해석을 통해 생산되고 확산됩니다. 집단 간 증오는 이런 방식으로 커지고 폭력과 사회분열에 이릅니다.

국가가 편견과 차별에 맞서는 대신 그 논리에 편승하여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에서 빼고 보호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과 폭력이 더욱 커지도록 용인하는 적극적 행위로, 국가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입니다.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을 키우는 것이 교육의 목표이며, 학생인권조례에서 성소수자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해야 할 이유입니다.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2011년 11월

참고자료 1. 2010년 서울 민주 진보 교육감 추대위 후보자 질의서

발신 : 동성애자인권연대

서울 민주진보 교육감 추대위 후보자님들께 질의하기 앞서

□ 수많은 미디어(TV드라마, 영화 등)들이 동성애를 다루고 있고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회자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동성애를 터부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경험하는 성적체성에 대한 고민은 학교와 또래동료들의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고 있고 오히려 검열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교사와 상담원, 가족구성원들은 함께 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적발될 시에는 수많은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기 때문에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입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소통을 단절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청소년기의 성적체성을 한 때의 욕망과 혼란이라고 치부하고 있지만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고민은 더 깊어져만 갑니다. 자긍심은 훼손되었고 변화에 대한 기대조차 상실하였습니다.

□ 2006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종합적인 인권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사회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인권NAP :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본 계획에는 사회적 약자로서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성소수자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성소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상담소 등 지원체계를 정비할 것, 다양한 차별(해고, 감봉, 가출, 부당징계 등)로부터 보호할 것 등입니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 30조 2항에서는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인권NAP 발표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게 성소수자들을 소외계층에서조차 배제되거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성적체성을 형성하는 시기부터 사회적 고립감과 심각한 스트레스로 인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원활한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경정신의학회 2002년 남성동성애자와 이성애자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공성옥 외)에 의하면 동성애자군이 이성애자보다 가족, 사회, 대인관계로 부터의 소외, 과거 정신과 병력, 놀림의 경험, 에이즈 검사 면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 특히 청소년 성소수자의 경우는 동성애를 비정상적으로 보는 편견으로 인해 자신의 성적체성에 대한 고민을 토로할 공간도 사람도 없습니다. 통계로 봐도 성 정체성을 고민하는 청소년이 적지 않습니다.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도 청소년 상담이 늘어가고 있는데 상담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장재홍 등의 2003년 연구에 따르면, 자신

이 동성애 성향이 있지 않을까 고민해본 청소년이 11.0%(남성 4.1%, 여성 12.2%)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 정체성을 고민하는 청소년들은 많아지고 있지만, 청소년 성소수자를 둘러싼 현실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절한 상담과 케어를 지원할 수 있는 물적 토대는 물론 정보 조차 얻기 힘든 상황입니다.

□ 2005년 발표된 청소년 성소수자 관련 연구논문(청소년 동성애자의 동성애 관련 특성이 자살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강병철, 하경희)에 따르면 학교 공간에서 反 동성애 폭력은 연구 대상자의 절반이상(52.9%)이 경험했을 정도로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고 이는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자살의 위험에 몰아넣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 미국의 경우도 청소년의 자살 요인 중 30% 정도(매년 50만 명 이상)가 동성애적인 성 정체성 때문이라고 하고 48-76%가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미국 메사추세츠주 교육위원회는 현재 HSSSS(Heath, Safety, Student, Support, Services)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대상은 바로 청소년 소수자들입니다. 여기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학교에서 안전한 공간 만들기 프로젝트나 학교에서 진행할 수 있는 성정체성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안하고 청소년 성소수자 상담단체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청소년 성소수자들을 바라보는 잘못된 시선을 바로잡고 본격적인 인권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사들과 청소년 상담원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1. 청소년 성(性)소수자(sexual minority)를 바라보는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 위 연구결과에서 보듯 학교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反동성애적인 폭력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삶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성과 평등의 가치를 배워야 할 모든 학생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학교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사회적 소수자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귀 후보가 가지고 정책은 무엇입니까?

3. 성정체성을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교사(보건교사 등), 학교 내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사를 대상으로 한(성정체성과 관련한 인권교육) 교육 프로그램은 전무하고 기초 매뉴얼조차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성정체성을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께서 교육감으로 당선된다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소수자 인권교육 과정과 인권감수성에 기초한 상담 및 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만드실 의향이 있습니까?

최홍이 후보

1. 청소년 성(性)소수자(sexual minority)를 바라보는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성애만이 정상이라는 관념은 잘못된 것이다. 동성애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애다.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에 동성애는 숭고한 사랑의 형태로 여겨졌다. 신라시대에도 동성애는 널리 수용됐다.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성애로 인정돼야 한다. 감수성이 민감한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수치스러워하지 않도록 우리는 함께 사회의 편견에 맞서야 한다. 성적 지향에 따른 모든 차별이 없어져야 한다. 이는 주류 사회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며 철저하게 한 개인의 삶을 인정하지 않는 아니 짓밟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인권 침해 행위이다. 최소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미리 재단하는 행위는 우리 모두 버려야 할 것이다. 성소수자들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 이에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 그러나 아무도 귀 기울여 들으려하지 않는 성소수자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함께'를 모색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하늘의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은 한 가지 색이 아니라 여러 색이 어울려 아름다운 것처럼 세상도 나 아닌 또 다른 모두가 어울릴 때 아름다운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위 연구결과에서 보듯 학교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反동성애적인 폭력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삶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성과 평등의 가치를 배워야 할 모든 학생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학교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사회적 소수자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귀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많은 고민 끝에 커밍아웃을 한 순간 주변의 모두는 순식간에 공격자가 된다. 친구는 물론 가족들에게까지 그들은 버려지고 폭력의 대상이 된다. 철저하게 개인의 삶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그들은 파괴까지 서슴지 않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 이는 지배이데올로기의 재생산 과정에서 동성애자는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결국 이는 교육을 통해 끊임없이 강요되어온 결과 우리는 세뇌되어 진 것이다. 이에 교육에서 성소수자의 성은 그 어느 곳에도 자리 잡을 수 없었다. 그 결과 성소수자는 커밍아웃을 한 순간 학습권은 물론 삶까지 위협 받고 결국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이에 우리는 교육의 가치를 다시 바라보며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교육은 지배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도구가 되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기의 하는 것이다. 이에 최소한 학교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체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 성소수자 문제는 당연히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아갈 수 있게 할 것이다.

3. 성정체성을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교사(보건교사 등), 학교 내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사를 대상으로 한(성정체성과 관련한 인권교육) 교육 프로그램은 전무하고 기초 매뉴얼조차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성정체성을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귀 후보가 교육감으로 당선된다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소수자 인권교육 과정과 인권감수성에 기초한 상담 및 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만드실 의향이 있습니까?

앞 질의에 대한 연속 답변으로 정리하면 1차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성소수자 이해가 가능하도록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물론 현행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의 기본은 국가가 갖고 있지만 시·도 교육감에게 주어진 운영 가능 부분을 통해 최대한 편성 가능하다. 2차적으로 교사 교육이다. 가르치는 교사 자신이 편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에 교사를 대상으로 사회적 소수자 문제에 대한 교육을 시킬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해야 하기에 전문가와 당사자들의 자문을 구하고 이들이 직접 참여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다. 3차적으로 학교 또는 지역에 상담센터를 설치, 전문성을 가진 상담교사를 배치하여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 모든 일을 바탕으로 이미 제시한 청소년 문화 축제 마당에 자긍심을 갖고 함께 참여하여 당당히 자신의 색깔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곽노현

1. 청소년 성(性)소수자(sexual minority)를 바라보는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도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성안 책임자로서 먼저 그 조례안에 따라 답변하겠습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에서는 차별금지 사유의 하나로 '성적 지향'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소수자 차별금지 원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듯이, 국제인권법의 일반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재직 하던 당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작성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도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에서 성소수자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성소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상담소 등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다양한 차별로부터 보호할 것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많은 어른들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아직 성장단계에 있으므로 자라면서 차츰 성정체성이 바뀌리라는 인식

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과 기대 자체가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부족과 편견을 드러내는 것이며,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기실현을 가로막는 장벽이 됩니다. 성적 지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청소년들이 한 명의 인간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발전시켜 나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2. 위 연구결과에서 보듯 학교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反动성애적인 폭력은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삶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성과 평등의 가치를 배워야 할 모든 학생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학교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사회적 소수자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귀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우선 교과서의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합니다. 동성애를 왜곡된 성으로 간주하고 이성애를 표준적인 성적 지향으로 보는 차별적 인식을 시정해야 합니다. 교과서의 '간접 차별'적 내용을 시정하고, 성교육 교재를 개편하고 성교육에 있어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학교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여 필요한 시정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특히 기독교 미션 스쿨에서 필요한 경우 성소수자들의 차별금지의 원칙에 대한 실효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체성 관련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대안교육의 기회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교육이 중요합니다. 청소년 성소수자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학생들 모두가 각자의 정체성을 인지하고 또 건강하게 형성시켜 나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학생만이 아니라 교사들에 대한 교육도 중요합니다.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자신들의 고민을 교사들에게 털어 놓지 못하는 것은 교사들이 이해하리라는 기대를 갖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사에 대한 커밍아웃의 비율이 미미할 뿐더러, 실제로 커밍아웃을 했을 때 교사들의 반응이 그들을 이해해 주기보다는 부정적 반응을 크게 보인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또한 전문상담교사 및 학교 이외의 청소년상담기관의 상담원들도 청소년 성소수자를 옹기 상담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아가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개발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정체성을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교사(보건교사

등), 학교 내 사회복지사, 상담사 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정체성과 관련한 인권교육) 교육 프로그램은 전무하고 기초 매뉴얼조차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성애자인권연대는 성정체성을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귀 후보가 교육감으로 당선된다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소수자 인권교육 과정과 인권감수성에 기초한 상담 및 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만드실 의향이 있습니까?

앞서 답변한 것과 같이, 청소년 성소수자들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현실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교사 교육을 위한 매뉴얼 제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 교육청의 예산과 기획으로 그 부분을 담당하겠습니다. 그 매뉴얼의 내용으로는 첫째, 청소년의 발달과정에서 성소수자 청소년이 겪는 주요한 문제들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방법, 둘째, 청소년 성소수자가 성정체성으로 인해 모욕이나 놀림 등 폭력의 피해를 입을 경우 그들을 보호하고 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셋째, 청소년이 성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겉으로 드러내는 일이 거의 없다는 점을 인지하여, 성정체성에 기인한 우울증과 부적응증을 미리 감지하고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감성을 갖는 훈련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